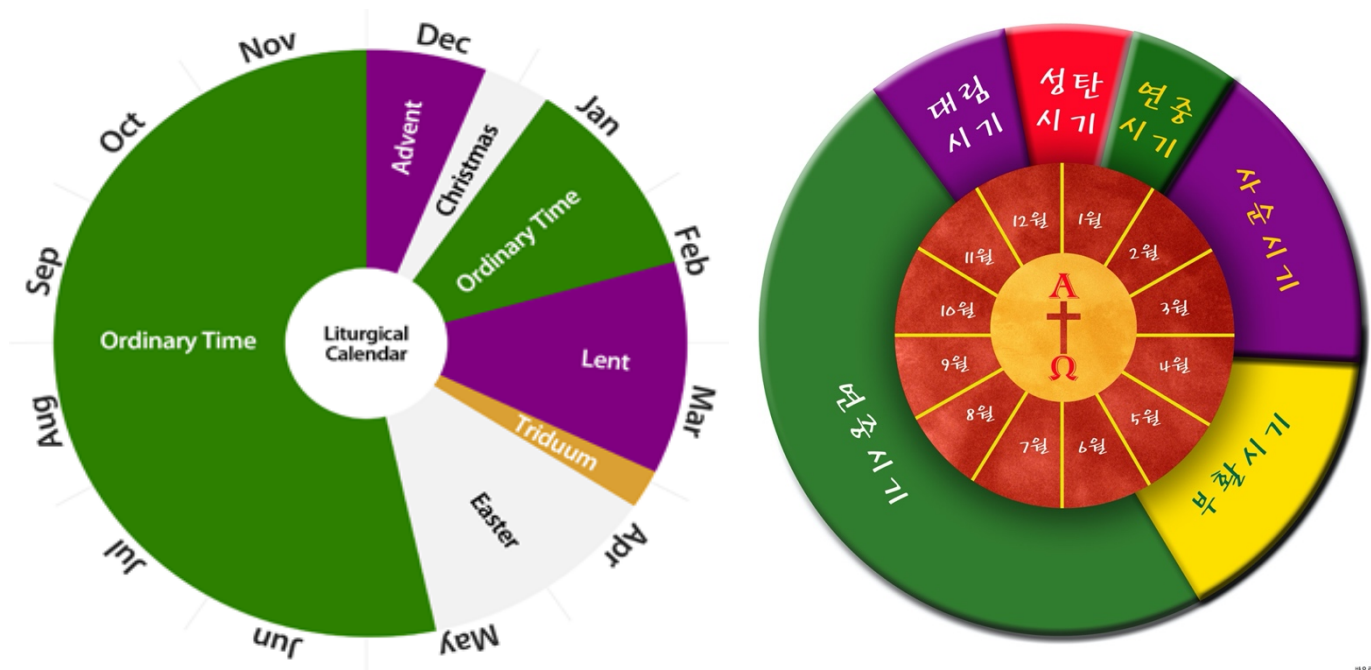


성삼일 (Holy Triduum)

전례주년(Liturgical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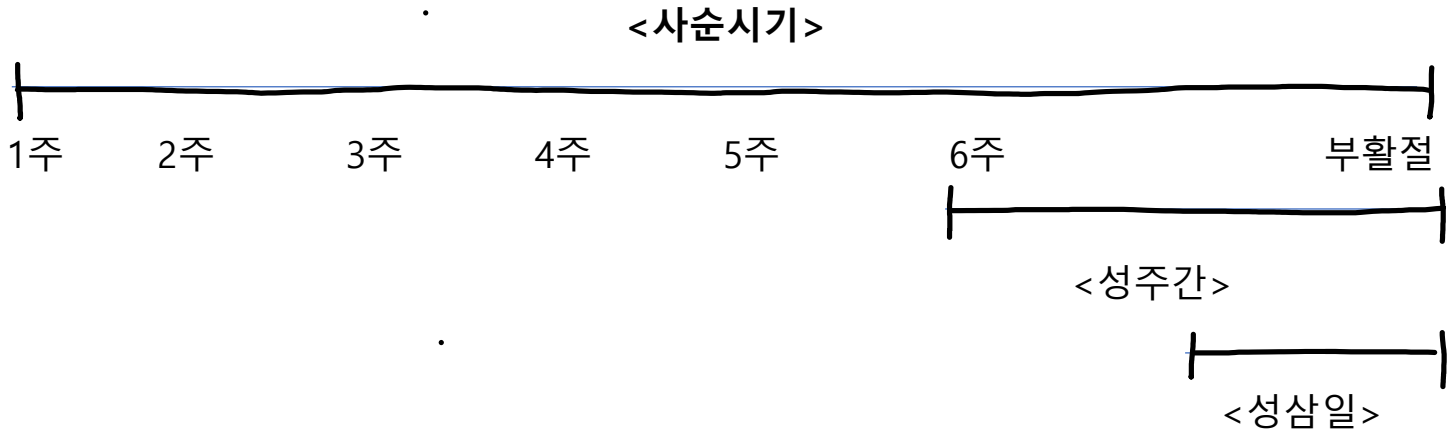
교회(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레고리오력(보통 달력)을 쓰면서 동시에 교회력 또는 전례력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력 또는 전례력은 크게 몇가지 시기로 나누어 1년을 지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순시기, 부활시기, 대림시기, 성탄시기, 연중시기가 그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며 지냅니다. 부활시기는 사순시기 다음에 오는 절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들도 부활하는 삶,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부여 받은 것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시기는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후 세상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 가까이 오신 그분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시기가 이어집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시간들은 연중시기로 정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들을 듣고 묵상하며, 그와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5개의 중요한 시기 안에는 각종 기념일, 축일, 대축일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특별한 성인들의 삶과 신앙의 내용을 기억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 전례주년이 됩니다.



<전례주년 (Liturgical Calendar) >

사순시기와 성주간 그리고 성삼일

전례주년의 시기 중 사순시기는 "40일간의 시간" 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는 6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여섯번째 주간이 성주간(Holy Week)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주간의 마지막 목,금,토~일 을 성삼일(Holy Three Days, Holy Triduum) 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성삼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성화" 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처럼 부활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이유가 바로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성삼일 곧 목, 금, 토요일에 하는 모든 미사나 예절들이 잘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믿는 내용의 핵심들이 이 성삼일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삼일 미사와 예식들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미사이며 예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삼일에 들어가기전에 성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성월요일은 복음에서 예수님 죽음을 예고합니다. 성화요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성수요일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예고합니다. 그럼 성삼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목요일

성목요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파스카 음식을 나누시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듯, 당신의 몸과 피를 삶과 영혼의 양식으로 내어 주시는 희생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맨날 하는 예식이지만, 이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만찬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미사 안에서 행하는 ‘최후의 만찬’ 예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목요일은 예수님이 미사를 만드신 날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날은 미사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다른 복음들 즉, 마르코, 마태오,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찬을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목요일 당일 읽는 요한 복음에서는 그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만 나옵니다. 인간이 가진 “발”은 인간의 가장 더럽고 상처받고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은 노예나 종이 씻어주는 것이지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서로 희생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

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미사에서는 특별히 “발씻김 예식”을 합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이 이날 돌아 가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그 슬픔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전체가 상을 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세계 모든 교회가 단식하고 금욕을 해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평소의 삶에서 당연히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참여하기위해 금욕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성사나 미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병자성사는 예외입니다. 돌아가신 시간을 추정해 보면 오후 3시쯤 입니다.

미사가 없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3시 정도에 “주님 수난 예식”이라는 것을 거행합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 그리고 영성체를 합니다. 이 예식 때 예수님이 수난하시고 돌아가시고 하는 복음을 요한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이 때 연극을 하듯이 복음을 읽는 것이 특징 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희망도 함께 갖고 슬픔 속에 머무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토요일~부활대축일

성토요일과 다음날인 부활대축일로 넘어가는 자정에는 부활대축일 밤 미사를 아주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대축일은 주일에 지내게 됩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죄와 악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 어둠 속에서 괴로워 할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부활로 극복 되고, 사람들의 믿음도 역시 부활로 인해 더 강해지고 그 부활의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빛의 예식"을 합니다. 시그니쳐, 큰 부활초를 밝히고 불이 다 꺼진 성당 중간을 통해서 그 빛을 가지고 입당하면서, 미리 나눠준 신자들의 손의 초에 불을 밝혀주면서 부활의 빛이 서서히 세상으로 번져 나가고 비추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활 성야미사 중 <빛의 예식> 장면



한편 이 미사에는 독서를 7개를 합니다. 구약성경 시대 때부터 중요한 신앙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7개의 독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중 제 3독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이 독서는 특히 의미있는 독서입니다.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을 청산하는 순간 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사람들과 또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죄의 노예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성사도 역시 그 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미사 때 세례성사를 거행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

